

여성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실태 및 만족도

고 은 주(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 김 혜 연(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최근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실태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여성의 직업교육 요구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위해 제주도의 대표적인 여성직업교육기관인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의 여성능력개발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된 설문지로 2008년 6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지 25부를 제외하고 39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로 실태파악과 관련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Chi-Square 검정, 분산분석(ANOVA), t-검정방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으로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생활은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5년 이하의 근무기간이었으며,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이유는 취업이나 자격증 등 직업적 동기가 약간 높았지만, 여가선용, 교양 및 사교 등 개인적 동기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의 취업증진, 나아가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살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시 어려운 점은 육아문제, 경제적 문제, 교통불편 등이 지적되었지만,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기대치가 충족되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만족도의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사의 성실성과 같은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교육환경, 프로그램자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실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해 차이를 가져온 여성의 특성은 거주지역으로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에 사는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여성의 일반적 특성보다는 취업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현재 직업이 있는 여성들이 교육기관 및 교육환경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교육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해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취업과 교양과정을 구별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